

純祖代(1800~1834) 安東地域 儒林의 정치적 동향

이재현*

차례

1. 머리말
2. 정국의 변화와 안동유림의 대응
3. 향론의 분열과 확산
4. 향론의 保畧 시도
5. 맺음말

【국문초록】

이 글은 순조 대 안동지역 유림의 정치적 동향을 살펴보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정조 집권 시 중앙정계에 등용되었던 영남남인이 도태되는 상황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1810년대에 병호시비가 촉발되는 과정을 이현일-이상정으로 이어지는 학통과 관련하여 추적하였다. 이후 병호시비가 호계서원을 넘어 지역 내 현안으로 확산되는 과정을 알아보고, 1820년대에 향론의 보합을 위해 어떠한 시도가 있었는지를 살펴보았다.

정조 즉위 이전 중앙정계에서 소외되어 있던 영남남인은 정조가 탕평책을 실

* 경북대학교 사학과 박사수료

시하면서 당시 근기남인의 거두인 체제공의 주선으로 중앙정계의 주변부에 자리 잡을 수 있었다. 하지만 정조가 승하하면서 안동을 중심으로 한 영남남인은 새로운 정치적 상황을 맞이하였다. 순조 대의 영남남인은 중앙정계에서의 존립이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이와 함께 병호시비라는 내부 분열을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었다.

병호시비는 호계서원에 이상정을 추향하는 문제를 두고 크게 확산되었다. 호유 측은 자신들의 학맥을 잇는 이상정의 추향을 통해 퇴계의 적전임을 천명하려 하였고, 병유 측은 이를 결사적으로 저지하려 하였다. 이러한 분열 양상은 호계서원을 넘어 다른 지역 내 현안까지 확대되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체제공 신원소 문제였다.

1820년대에는 『변암집』 간행작업과 을유도회를 통해 시비를 보합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하지만 끝내 화합에는 실패하였다. 이것은 양측이 당대 정치 현실에 대한 정치적 지향에도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병유 측은 향내 현안 해결을 위해서는 중앙정계와의 연계도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지만, 호유 측은 정체성을 명확히 하면서 중앙정계에 배타적 입장이었다.

순조 대 안동유림은 중앙정계에서 다시 소외되는 과정 속에서 향론의 분열에 직면하였다. 이에 한 측은 중앙정계와 다각도로 연계를 시도하면서 현안을 해결하려 하였고, 한 측은 정체성을 확고히 하면서 중앙정계에 진출하여 하였다. 이러한 인식 차이로 인해 일련의 보합 시도는 결국 실패하였고, 다음 세대의 과제로 남겨지게 된다.

주제어

영남남인, 안동유림, 병호시비, 호계서원, 『변암집』

1. 머리말

17세기 이래로 安東지역은 嶺南南人の 중심지였다. 그러나 영남남인과 기호남인을 모두 포괄한 南人の 정치적 입지는 甲戌換局(1694, 숙종 20) 이후 중앙 정계에서 西人 혹은 老論에 비해 완전한 열세에 처하게 된다. 영남은 戊申亂(1728, 영조 4)으로 인해 영조 치세 동안 ‘逆鄉’으로 지목되었고, 특히 안동지역의 경우 주요 인사들이 연루되면서 무신란의 혐의를 완전히 벗지 못하였다. 영남남인은 정조의 탕평책 실시로 중앙정계에 일부 등용되기도 하였지만, 정조의 昇遐와 함께 새로운 정치적 상황을 맞이했다.

순조 즉위 초부터 중앙 정계는 벽파가 시파를 물리치고 집권했다가 축출당하고, 勢道政治가 시작되는 정치적 변화가 일어났다. 이 과정에서 영남남인은 정조 대에 마련한 중앙 정계에서의 기반을 상실하였다. 이와 맞물려 영남남인 내부에서 향촌 주도권을 둘러싸고 분열이 일어나면서 이른바 屏虎是非가 전개되었다. 이것은 이황의 嫡傳이 누구인가를 놓고 영남남인 내에서 병유와 호유가 분열된 사건이었다. 안동 虎溪書院에서 李象靖(大山, 1711~1781) 追享 문제를 둘러싸고 확대된 이 시비는 이후에는 영남남인 대부분이 참여하는 향전으로 확대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안동유림은 논란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었다.

이 글에서는 세도정치 전반기에 해당하는 순조 대에 중앙정계의 변화와 맞물려 안동으로 대표되는 지역의 정치적 움직임을 추적하려고 한다. 이를 통해 당대 지역정치사를 구체적으로 살피는 한편 당시 중앙정계와의 연동을 통해 세도정권이 지역사회에 작동되었던 기제도 살펴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 동안 이 시기를 대표하는 사건인 屏虎是非에 대해서는 몇 차례의 연구가 진행되었다.¹⁾ 이를 통해 17세기 초 여강서원이 설립되던 당시에 벌어진 갈등상황부터 19세기에 是非가 심화되었던 양상을 상세히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또 당사자인 屏儒와 虎儒 양측이 당시 상황을 기록한 자료들도 함께 소개된 바 있다.²⁾

19세기 병호시비의 핵심은 이상정의 追享 문제에 있었다. 이를 실현 하려는 측과 저지하려는 측이 모두 결사적으로 是非에 매달린 이유는 이 문제가 李滉(退溪, 1501~1570)의 嫡傳이 누구인가 하는 문제와 결부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虎溪書院을 중심으로 하는 是非의 양상은 그 동안 충분히 고찰되었다.

따라서 기존의 연구를 바탕으로 향론의 분열이 서원을 넘어서서 지역 사회로의 확대되는 양상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지역 유림의 중앙정계와의 관계를 고찰하려고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정조 연간에 조금이나마 중앙정계에 등용되었던 영남남인이 순조 즉위 이후 정국에서 도태되는 상

-
- 1) 申奭鎬, 「屏虎是非に就いて(上)(下)」, 『靑丘學叢』1·3, 1930·1931; 권오영, 「조선후기 유림의 사상과 활동」, 돌베개, 2003; 金炯秀, 「조선후기 영남지역 여론 형성과 정치 참여: 통문과 상소」, 『조선후기 고문서 자료집(I)』, 한국국학진흥원, 2007; 「19세기 안동과 휘주의 향전과 종족 갈등」, 『안동학연구』6, 2007; 설석규, 「退溪學派의 分化와 屏虎是非(I)」, 『한국사상의 재조명』, 한국국학진흥원, 2007; 「退溪學派의 分化와 屏虎是非(II)- 廬江(虎溪)書院 置廢 顛末」, 『退溪學과 韓國文化』45, 慶北大學校 退溪研究所, 2009; 김성윤, 「안동 남인의 정치적 일상과 지역정치 동향 - 철종대 김수근서원 건립과 고종대 병호보합을 중심으로 -」, 『嶺南學』15,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09; 김명자, 「조선후기 安東 河回의 豊山柳氏 門中 연구」, 경북대 박사학위논문, 2009, IV장 2절; 한상우, 「조선후기 鄉戰을 통해 본 양반층의 親族, 婚姻 - 안동의 屏虎是非를 중심으로」, 『大東文化研究』81, 成均館大學校 大東文化研究院, 2013.
- 2) 병호시비의 전말을 담고 있는 고문서 자료는 『廬江志』, 『廬江顛末』, 『屏虎保合顛末』, 『霞溪手錄』 등이 있다. 병유 측 자료는 풍산김씨의 『廬江志』와 『屏虎保合顛末』이며, 호유 측 자료는 전주류씨의 『廬江顛末』과 이가순이 쓴 『霞溪手錄』이다.

황을 살펴볼 것이다. 또 이후 병호시비가 촉발되는 과정을 李玄逸(葛庵, 1627~1704)-이상정으로 이어지는 학통과 관련하여 추적해 보려고 한다. 이후 주안점을 두고 살펴볼 것은 蔡濟恭(樊巖, 1720~1799) 신원을 둘러싼 향론의 전개와 『번암집』 간행을 둘러싼 향촌사회의 갈등 양상이다.³⁾ 그리고 안동 지역의 향론이 분열과 보합하는 양상을 도산서원 원장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 과정을 추적하기 위해서 기존의 알려진 자료는 물론 당시의 각종 일기자료들을 활용하려고 한다. 특히 『번암집』의 간행과 관련된 사항은 『刊所日記』를 통해서,⁴⁾ 『갈암집』 간행 관련 기록은 「庚午日記」를 통해서 알아보고,⁵⁾ 19세기 초반 영남남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자료로는 李秉鐸(癯翁, 1760~1832)의 「癯翁李秉鐸曆上日記」를 활용할 것이다.⁶⁾

-
- 3) 『번암집』 간행과 관련된 연구로는 김문식, 「번암집 간행의 경과」, 『문헌과 해석』26, 문헌과 해석사, 2004; 임노직, 「樊巖集 판각 경위와 문화사적 의미」, 『한국사상의 재조명』, 한국국학진흥원, 2007. 등이 있다.
 - 4) 『간역시일기』는 3종의 다른 판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것은 모두 한국국학진흥원에서 『간역시일기』(2015)로 출간하였다.
 - 5) 「경오일록」은 이상채의 『守拙齋文集』에 실려 있다. 이상채는 이현일의 형 이휘일의 후손이다.
 - 6) 「癯翁李秉鐸曆上日記」는 이병탁이 쓴 필사본으로, 책력 위에 해당일의 일기가 기록되어 있다. 현재 총 6책(1책: 1823년 1822년, 2책: 1819년 1818년, 3책: 1821년 1820년, 4책: 1815년 1825년 1824년, 5책: 1817년 1816년, 6책: 1832 1830년 1831년)의 일기가 있다.

2. 정국의 변화와 안동유림의 대응

이황으로부터 시작되는 영남남인의 학맥은 퇴계의 고제인 趙穆(月川, 1524~1606)·金誠一(鶴峯, 1538~1594)·柳成龍(西厓, 1542~1607)·鄭述(寒岡, 1543~1620)·張顯光(旅軒, 1554~1637)을 중심으로 각각 분기하면서 발전하였다. 이 중 안동권과 관련이 있는 인물은 조목·김성일·류성룡이다. 먼저 월천계가 예안의 도산서원을 중심으로 안동에서 주도권을 장악하였으나, 북인과 결탁하다 인조반정 이후 몰락하였다. 이후 월천학맥은 학봉계로 흡수되었다. 인조반정 이후 17세기 초 중반에는 서애계가 안동·상주를 중심으로 위상이 커졌다. 상대적으로 열세였던 학봉계는 葛庵 李玄逸이 현달하면서 주도권을 차지하게 된다. 이현일은 이황-김성일-장흥효에서 자신으로 이어지는 학통을 제시하였고, 이를 퇴계학맥의 정통으로 주장하였다.⁷⁾ 이후 이현일의 학맥은 아들인 李穡(密菴, 1657~1730), 외손인 이상정으로 이어진다. 특히 이상정은 18세기 중엽 영남남인을 규합한 학자였다.

이러한 학통의 전수와는 별개로 영남은 무신란 이후 '逆鄉'으로 인식되었고, 영조 연간에 걸쳐 중앙 정계에서 완전히 소외되었다. 영남남인의 정치적 복권이 시작된 것은 1788년(정조 12)에 영남 유생 李鎭東(寡齋)이 『戊申倡義錄』을 지어 올리면서부터였다. 무신란 당시 영남에서 거병한 인물의 명단인 이 책의 등장은 사실 체제공이 주선한 것이었다. 이 책을 본 정조는 '역향'이라는 그 동안의 영남에 대한 인식을 바꾸게 된다.⁸⁾ 정

7) 17세기 영남학파의 분기와 갈암계로의 통합 양상은 金鶴洙, 「17세기 嶺南學派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08. 참조.

8) 김문식, 「영남 남인에 대한 조치」, 『정조의 제왕학』, 태학사, 2007. 433-435쪽.

조와 체제공은 탕평정치의 완성을 위해 영남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끌어안을 필요가 있었다. 이를 위해 1792년(정조 16) 3월에는 각신 李晩秀가 경주의 玉山書院과 崇德殿을 치제하고, 돌아오는 길에 陶山書院에 치제하였다. 특히 도산서원에서 치제할 때는 영남유림을 위해 別試를 거행하였는데, 여기에는 거의 1만여 명이 참여하였다. 정조의 이러한 조치에 영남인들도 부응하여 같은 해 윤4월에는 莊獻世子の 신원을 요구하는 ‘嶺南萬人疏’가 李塢(俛庵, 1739~1811)를 疏首로 하여 올려졌다. 영남에 대한 배려의 일환으로 1798년(정조 22)에는 『嶺南人物考』 편찬 사업이 진행되었다.⁹⁾

이 과정을 주도한 인물은 당시 정승이던 체제공이었고, 영남인으로 중앙에 진출해 있던 金翰東(臥隱, 1740~1811)이 중간에서 영남인을 잇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하지만 근기남인이 중앙정계에 정파로 자리 잡고 정조의 우호적인 조치가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영남남인의 중앙정계 진출은 매우 미미한 수준이었다. 따라서 그들은 중앙 정계에 하나의 세력으로 자리 잡지 못하고 왕의 관심과 근기 남인, 특히 체제공의 지원 속에서 주변부에 자리 잡을 수 있었다.¹⁰⁾

그러나 1800년에 정조가 승하하면서 중앙정계는 급속히 변화하였다. 정순왕후의 수렴청정과 함께 집권한 노론 벽파는 노론 시파 및 소론, 근기남인 세력을 조정에서 축출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영남남인의 경우 애초에 하나의 세력으로 깊게 뿌리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급격

9) 영남만인소의 추진배경과 의미 및 정조대의 영남인에 대한 조치에 관해서는 李樹健, 「正祖朝의 嶺南萬人疏」, 『嶺南學派의 形成과 展開』, 一潮閣, 1995, 533~540쪽. 참조.

10) 김성우, 「정조 대 영남 남인의 중앙 정계 진출과 좌절」, 『다산학』21, 다산학술문화재단 2012, 199~203쪽.

한 축출은 맞지하지 않았다. 하지만 정조가 昇遐한지 두 달도 되지 않아 仁同에서 ‘仁同作變’이 일어나 영남의 주요한 명망가 중 하나였던 장현광 가문이 거의 멸문에 가까운 화를 입었다. 이 사건은 지방에서 발생하였지만 당시 중앙정계에 있던 영남남인들도 극도로 위축되는 계기가 되었다.¹¹⁾

1801년(순조 1) 초부터 신유박해가 일어나자 근기남인들은 큰 피해를 당하였다. 영남남인들은 신유박해 때에 직접적으로 연루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후 채제공이 추탈되면서 주요 인사들이 화를 당하였다. 대표적으로 영주 출신의 李仁行(新野, 1758~1833)과 안동 해저리 출신의 김한동을 들 수 있다. 이인행은 李家煥(錦帶, 1742~1801)과 연루되었다는 혐의로 1802년 1월에 유배되었다.¹²⁾ 이것은 이인행의 西學에 연루되었다는 혐의를 붙이는 것으로,¹³⁾ 이인행과 가까운 영남남인들에게까지 西學의 혐의를 덧씌우는 의미가 있다. 김한동은 정조 대 이래 영남남인 가운데 정치적으로 가장 유력한 인물이었다. 그는 정조 승하 이래 한 번도 출사하지 않았다는 죄목에 채제공과의 관련성이 더해지면서 유배되었다.¹⁴⁾ 이들의 유배는 순조 초기 근기남인의 실각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1803년 2월에 있었던 趙德鄰(玉川, 1658~1737)의 추탈의 경우 의미가 달랐다.¹⁵⁾ 조덕린은 영조 초기 영남을 대표하는 관리였다. 그

11) ‘인동작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김성우, 「1800년 ‘인동 작변(仁同作變)’을 둘러싼 다종의 시선들」, 『역사와 현실』82, 한국역사연구회, 2011. 참조.

12) 『순조실록』 권4, 순조 2년 1월 28일 경자.

13) 『순조실록』 권5, 순조 3년 1월 29일 을미.

14) 『순조실록』 권4, 순조 2년 10월 1일 기해.

15) 『순조실록』 권5, 순조 3년 2월 20일 병진.

는 영조에게 올린 시무소가 문제가 되어 유배되었다. 하지만 탄핵의 실제적인 이유는 그가 이현일의 문인이었기 때문이었다. 숙종 연간 영남남인의 산림을 대표하는 인사였던 이현일은 갑술환국으로 죄를 입은 뒤 영조 연간까지 신원이 되지 않았다. 당시 權斗經(蒼雪齋, 1654~1725), 조덕린, 金聖鐸(霽山, 1684~1747) 등 이현일의 제자로 중앙정계에 있던 인물들은 이현일의 신원운동을 전개하고 있었다.

문제는 이현일의 제자 중 상당수가 무신란 때 鄭希亮과 연루되어 있었다는 점이었다. 국문과정에서 영조는 영남인들을 회유하는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였다. 하지만 영조가 이들에 대한 의심을 완전히 거둔 것은 아니었다. 결국 1737년(영조 13)에 김성탁은 이현일의 변호를 시도하다 유배되었고, 조덕린은 유배지에서 사망하였다. 이 사건 이후로 이현일 문인들의 중앙정계 진출은 봉쇄된다. 이현일의 문인은 당시 안동권 유림을 대표하고 있었으므로, 이것은 영남남인의 중요세력이었던 안동유림의 중앙정계 진출이 봉쇄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¹⁶⁾

조덕린의 신원은 『무신창의록』 간행과 관계있다. 정조는 『무신창의록』을 본 후 조덕린과 黃翼再(白華齋, 1682~1747)의 신원을 허락하였다. 이 때 영의정이던 金致仁(古亭, 1716~1790)은 이들의 신원에 반대하였으나 체제공의 찬성과 정조의 의지로 신원되었다.¹⁷⁾ 이는 무신란 당시 조덕린을 위시한 안동권 인물들이 반란을 진압하는 데에 공을 세웠고 따라서 영

16) 이재현, 「18세기 이현일 문인의 伸冤운동과 追崇사업」, 『大丘史學』117, 大丘史學會, 2004, 48~50쪽.

17) 『정조실록』 권26, 정조 12년 11월 10일 무진. 조덕린의 신원을 위한 한양조씨 문중의 활동과 체제공의 역할에 관해서는 趙峻皓, 「17~18세기 英陽地方 漢陽趙氏의 門中研究-士族家門의 確立과 變遷의 한 事例」, 『北岳史論』4, 北岳史學會, 1997, 198~204쪽 참조.

남은 ‘逆鄉’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1803년에 일어난 조덕린의 추탈은 안동지역 유림(영남남인)에게 다시 무신란의 혐의를 씌우는 의미가 된다.

당시 집권한 노론 벽파의 입장에서 안동을 중심으로 한 영남남인은 근기남인처럼 중앙정계에서 축출할 만한 세력이 되지는 못했다. 하지만 영남남인의 정치적 명분을 완전히 봉쇄할 필요는 존재하였다. 이에 체제 공과의 연관성 및 무신란의 혐의를 씌워서 영남남인의 정치적 명분을 절멸하려 하였다.

이러한 노론 벽파의 견제책은 정순왕후의 수렴청정 종료 및 사망과 함께 벽파가 몰락하면서 실현되지 않았다. 정순왕후 사망 이후 1805년(순조 5) 2월에 김한동과 이인행이 해배되었다. 같은 해 12월에 당시 벽파의 영수이던 영의정 金達淳(一靑, 1760~1806)은 시파에 대한 공격을 가해 정국을 변동시키려 하였다. 김달순은 사도세자에 대한 壬午義理를 다시 해석해 정국의 주도권을 잡으려 하였고, 이 와중에 영남만인소의 疏首이던 이우를 언급하였다.¹⁸⁾ 김달순은 이우를 귀양 보내면서 임오의리에 대한 재해석과 영남남인에 대한 제한 조치를 취하려 하였지만, 도리어 시파의 공격을 받아 실각하고 말았다. 이 과정에서 이우는 두 달 만에 유배에서 풀려날 수 있었다.

이후 집권한 시파 정권은 영남남인에 대한 정치적인 공격을 시도하지 않았다. 영남남인의 경우 애초에 근기남인과 같이 중앙정계에 결집된 것이 아니라 정계의 주변부에 지나지 않았다. 또 이 시점부터 屏虎是非가 일어나면서 영남남인 스스로 분열에 빠지게 되어 굳이 대규모 축출 시도를 할 필요가 없어졌다. 하지만 영남남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죄목을 풀

18) 『순조실록』 권7, 순조 5년 12월 27일 병오.

어 출사의 명분을 만들어 주려 하지는 않았다. 이 때문에 이현일과 조덕린은 시과 정권이 들어섰음에도 신원되지 못했다.

1806년부터는 병호시비가 다시 시작되었다.¹⁹⁾ 이해 겨울 영남 4현(김성일, 류성룡, 정구, 장현광)의 승무를 시도할 때 김성일과 류성룡의 위차문제를 두고 시비가 일어난다. 학봉계는 상소문에 年齒에 따라 ‘鶴厓’의 순서로 써야한다고 주장하였고, 서애계는 위패를 모신 순서에 따라 ‘厓鶴’의 순서로 써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영남유림은 시과의 집권이 병과의 집권보다 문묘중사를 청원하기에 용이하다고 판단하고 이 운동을 전개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역 내의 분열로 상소조차 올리지 못했다. 이때부터 호계서원에 남아서 ‘虎儒’를 주장하는 쪽이 虎儒가 되었고, 호계서원을 떠나서 ‘厓鶴’을 주장하는 쪽이 ‘屏儒’가 되었다.

1810년에는 영해에서 이현일의 문집인 『葛庵集』이 판각이 추진되었다.²⁰⁾ 간행을 주도한 사람은 이현일의 형인 李徽逸(存齋, 1619~1672)의 후손인 李相采(守拙齋, 1787~1854)였다. 영해에서 本孫의 주도로 문집 간행이 추진되었지만, 『갈암집』의 간행 사업은 당시 안동 지역 유림에게는 큰 의미가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첫 번째 이유는 이현일이 당시 안동유림의 學統에서 상징적인 인물이었다는 점이다. 이현일은 이황-김성

19) 병호시비의 시작은 일반적으로 여강서원을 처음 건립하던 17세기 초에 류성룡과 김성일의 위차를 두고 벌어진 갈등으로 본다. 하지만 이때 서애계와 학봉계 양측은 월천계에 대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서로 협력하였고, 정경세의 중재로 관력 순으로 위차를 정리하는 것으로 매듭지어졌다. 또 이 당시는 상대적으로 서애계가 우세하고 학봉계는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시기였다. 이것은 19세기 초에 시작된 병호시비와는 다른 양상이다. 설석규, 「退溪學派의 分化와 屏虎是非(II)-廬江(虎溪)書院 置廢 顛末」, 『退溪學과 韓國文化』45, 慶北大學校 退溪研究所, 2009, 326~338쪽.

20) 이후 1810년 갈암집 판각에 대한 사항은 『庚午日錄』을 바탕으로 정리한 것임.

일-張興孝(敬堂, 1564~1634)를 잇는 학맥의 종장이었고, 19세기 초반 당시 虎儒의 학맥은 이현일-이재-이상정으로 연결되고 있었다. 앞서 언급한 바 있듯이 조덕린·김성탁은 모두 이현일의 직전제자이다. 하지만 이현일을 비롯하여 조덕린·김성탁은 모두 죄안에 올라 있었고, 이들을 위한 신원운동은 모두 실패하였다. 즉 19세기 초에 虎儒는 그들의 학통에 해당되는 주요 인물들이 죄안에 올려져 있었고, 이들의 신원여부가 그들의 정치적 입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현안이었다. 신원을 강력히 방해하던 세력은 벽파였다. 따라서 시파 정권이 성립되자 이현일의 본손 및 문도들은 신원 여부와 관계없이 『갈암집』 판각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이유는 『갈암집』이 본집과 별집을 합쳐 35권 18책에 달하는 거질이었다는 점이다. 현재 남아있는 기록에 『갈암집』 판각 경비가 전해지지 않지만, 10여 년 후에 『樊巖集』 판각 당시 추산 경비는 4,000여 냥에 달했고, 실제 집행된 경비도 2,500냥 이상이 되었던 것으로 보아 대략적인 금액을 추정할 수 있다. 『번암집』이 60권 27책이므로, 『갈암집』 판각 경비는 어림잡아 1,500냥 이상이 집행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정도 비용을 본손 및 영해지역의 유림들로만 마련했을 가능성은 낮다는 점이다. 즉 『갈암집』 판각 작업은 영남에서 擧道的으로 추진되기는 힘들지만, 최소 영해를 넘어서 안동권을 중심으로 추진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 문집 간행 후 감영에 이 사실을 고발한 것이 초계·의령·삼가 세 읍의 유생이었다는 기록이다.²¹⁾ 초계·의령·삼가의 유생이 문집 간행 사실을 알고 고발할 정도로 당시

21) 『경오일록』 庚午(1810) 8월 16일. “...(前略)... 一齊入庭, 詳聞委折, 則草溪宜寧三嘉三邑儒生, 呈營惹起鬧端云云. ...(後略)...”

『갈암집』 간행 작업은 영남지역에 알려져 있었다.

『갈암집』 판각은 순조 연간 정국의 변화이후 虎儒측의 집결 시도로 보인다. 작업은 1810년 7월에 마무리되었는데, 8월에 초계·의령·삼가 유생의 고발로 감영의 조사가 진행되었다. 결국 12월에 조사가 마무리되어 주도자 6인은 유배되고 문집은 소각하고, 목판은 전소시키는 것으로 판결이 났다. 이들은 1812년 9월에 유배에서 풀려났다.

호계서원에 이상정을 추향하는 시도는 1812년 10월에 시작되었다. 虎儒는 1806년부터 호계서원을 독자적으로 주도하기는 했으나, 조덕린과 이현일의 사례에서 보듯이 그간의 정치적 행위들은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이상정 추향 시도는 이러한 상황에서 자신들의 학통의 ‘퇴계의 嫡傳化’를 이루고, 호계서원의 주도권을 확보하여 향론의 주도권을 장악하려는 시도였다.

3. 향론의 분열과 확산

1810년대에는 중앙정계에서 勢道政權이 안정되어 가는 가운데, 안동 지역에서는 병호시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병호시비를 확대시킨 것은 이상정을 호계서원에 추향하는 문제였다. 이후 추향문제와 더불어 호계서원의 位版 擅動을 둘러싸고 官에 呈訴하는 등 사태가 확산되었다. 호계서원을 둘러싼 주도권 갈등은 다른 향내 문제를 둘러싸고 퍼져나갔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체제공 신원소를 둘러싼 갈등이었다. 또 도산서원 원장직을 둘러싸고도 갈등이 나타났다.

병호시비가 본격적으로 확대된 것은 호유 측이 1812년(순조 12)에 호계서원에 이상정 추향을 시도하면서부터이다.²²⁾ 이때 호유는 禮安鄉校에서 道會를 열어 이상정을 추향하기로 하였으나, 병유 측에서 배위를 멋대로 옮길[擅動] 우려가 있고, 또 이상정을 추향하면 또다시 다른 인물을 추향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하였다. 몇 차례의 도회 끝에 이상정 추향 문제는 합의에 실패하였다.

1816년(순조 16)에 호유 측에서는 이상정의 贈職을 계기로 다시 이상정의 추향을 시도하였다. 이때 병유는 호계서원의 사당 내부가 앞이 좁고 뒤가 넓어[後廣前窄] 이상정을 추향하려면 擅動이 불가피하며, 鄭經世(愚伏, 1563~1633)가 廬江書院 창립당시의 유훈에서 '다시는 사당의 문을 열지 말라.[此門不可復開]'고 했다는 점을 들어 반대하였다. 호유는 이러한 주장에 반발했지만 또다시 합의에 실패하면서 이상정의 추향은 실패하였다.

같은 해 12월에는 병유 측에서 호유 측이 이미 위판을 擅動했다고 주장하였다. 이듬해(1817) 1월에 양측이 호계서원에서 조사를 했지만 是非를 가리지 못하고, 2월에는 병유 측에서 監營에 呈訴하여 위판을 원래 위치로 옮길[還安] 수 있도록 요청하였다. 당시 경상도 관찰사인 金魯敬(酉堂, 1766~1837)은 처음에는 자세한 정황을 알지 못하고 곧바로 병유의 요청을 들어 주었다. 그러나 호유의 진정을 보고 향내 갈등이 심각함을 인지하였다. 그는 사람의 일은 관에서 개입할 문제가 아니라고 결정하였

22) 병호시비의 과정에 대하여 申爽鎬는 전주류씨의 『廬江顛末』를 활용하였고, 김명자는 풍산김씨의 『廬江志』를 주로 활용하였다. 설석규와 김형수는 사안에 따라 양측의 자료를 모두 활용하였다. 여기서 병호시비에 관한 서술은 앞의 논문들의 참조하여 요약 정리하였다.

고, 이후 모든 정소에 대한 같은 태도를 견지하였다.²³⁾

감영에 정소하고도 사태가 해결되지 않는 가운데, 1817년 7월에 호유 측은 타양서원에서 이상정 추향을 의결하였다. 이에 병유 측은 9월에 純祖의 참배길에 御駕에 직접 上言하였다. 왕이 윤허하자 禮曹에서 관문이 내려왔는데, 관문의 내용은 양측의 유생을 회유하고 환안하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호유 측에서 관문 중 “이에 사실을 조사하고 환안 한 이후에 차례로 이송하라[此亦中查實還安後回移次]”라는 문구가 위조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벌어졌다. 이 사건은 禮曹吏가 공문서를 조작하였다는 점을 들어 그가 파직되는 것으로 끝이 났다.

1819년(순조 19)에는 호유 측에서 이상정이 편찬한 『退溪書節要』를 간행하려 하자 병유 측에서 문제점을 거론하고 나섰다. 그것은 『퇴계서절요』의 목록 중 柳成龍의 각주에서 萬曆庚寅光國의 공을 기록하지 않고, 모든 훈공을 임진년 이후의 일로 기록하였으며, ‘豐原府院君’을 ‘豐山府院君’으로 잘못 표기했다는 것이다 또 柳雲龍의 경우에는 각주도 없이 성명만 기록하였다는 것이다. 병유 측이 굳이 이런 점을 언급한 이유는 이상정이 호계서원에 추향될 만한 인물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다.

1820년 8월에 호계서원에서 묘위를 몰래 옮긴[廟位潛遷] 범인이 지목되었다. 당시 병유의 대표인사인 金宗圭(1765~1830)는 1816년에 묘위를 옮긴 범인이 李秉運(俛齋, 1766~1841, 이상정 孫), 柳致直 및 사당지기 莫三이라는 것을 李顯周에게 들었다고 주장하였다. 이현주는 당시 호

23) 권오영은 노론 정권이 영남남인의 자체분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병호시비의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고 보았다.(권오영, 『조선후기 유림의 사상과 활동』, 돌베개, 2003, 388쪽.)

계서원 齋任인 朴謙中에게 들었다고 주장했는데, 이에 박겸중은 이현주가 병유의 뇌물 300냥을 받고 사건을 지어냈다고 주장하였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가운데, 호유 측에서는 10월에 지난 1816년의 예조 관문의 위조범으로 김종규를 감영에 고발하였다. 같은 달 22일에 관찰사 李在秀는 안동부에 양측을 불러놓고 위조여부를 조사하여 예조에 보고하였다. 이 사건의 결론은 예조의 曹吏인 裴光玉이 멋대로 ‘還安’을 써놓아 그가 면직되는 것으로 끝맺어졌다.

이렇게 병호시비, 특히 이상정의 추향문제가 민감했던 이유는 그가 이황-김성일-장흥효-이현일-이재-이상정으로 이어지는 호유 학맥의 대표자였기 때문이다. 이상정이 호계서원에 추향된다면 호유는 명실상부한 퇴계학통의 적통이 된다. 스승의 서원에 제자를 추향시켜 학파의 정통성을 강화하려는 시도는 17세기 초 도산서원의 예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²⁴⁾ 이러한 정통성의 강조는 鄉論을 누가 주도할 것인가는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병호시비가 확대되면서 다른 향내 현안에서도 주도권 장악을 위한 갈등이 나타났다. 당시 사론의 중심지 역할을 하는 안동권의 서원들도 병호시비 이후 병유 측 서원과 호유 측 서원으로 나누어졌다. 대개 三溪書院, 靑城書院, 鏡光書院, 默溪書院, 龜溪書院, 陀陽書院, 魯林書院 등은 호유의 입장을 견지하였고, 屏山書院, 周溪書院 상주의 道南書院 등은 병유의 입장을 대변하였다. 논란의 핵심인 호계서원은 이미 ‘호유’라는 명칭에서 호유(학봉계)가 주도권을 확보하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호계

24) 이상현, 「月川 趙穆의 陶山書院 從享論議 : 17세기 嶺南士族 動向의 一端」, 『北岳史論』8, 北岳史學會, 2001, 참조.

서원에 류성룡이 배향되어 있는 한 호유의 배타적 주도권은 존재할 수 없었고, 언제나 병유와 공존하며 견제가 벌어지고 있었다.²⁵⁾ 거듭된 이상정 추향 실패는 호계서원이 호유가 서원을 마음대로 운영할 수 없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18세기 이래로 학봉계가 호계서원 운영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은 호계서원 원장을 통해서도 추정할 수 있다. 현존하는 호계서원 원장 명부는 1750년까지만 남아있다. 그러나 이를 통해 18세기 이래로 이상정을 위시한 이현일의 문인집단이 원장직을 수행한 비율이 높다는 것과 원장을 역임한 이들이 도산서원을 비롯한 다른 서원의 원장을 역임한 사례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²⁶⁾ 1805년 병호시비가 처음 시작될 때 병유측이 스스로 호계서원에서 떠난 이유도 이러한 호유 측의 주도권 때문으로 보인다.

이 시기 안동권에서 병유와 호유가 격돌하는 중요한 서원으로는 도산서원을 들 수 있다. 도산서원은 기호학과에 대칭되는 영남학파의 본산으로 재야 남인의 정치·사회적 활동의 중심지였다.²⁷⁾ 도산서원에서의 발론은 영남 전체의 발론과 같은 위상을 지니는 것이었다. 도산서원의 대표성으로 말미암아 도산서원은 병유나 호유 한 측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병호시비가 확산되자 도산서원에서의 주도권을 차지하려는 시도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 일단을 도산서원 원장 명

25) 설석규, 「退溪學派의 分化와 屏虎是非(Ⅱ)-廬江(虎溪)書院 置廢 顛末」, 『退溪學과 韓國文化』45, 慶北大學校 退溪研究所, 2009, 354~359쪽.

26) 김영나, 「16~18세기 안동지역 사족의 호계서원(虎溪書院) 운영」, 『朝鮮時代史學報』73, 朝鮮時代史學會, 2015, 136~147쪽.

27) 이수환, 『朝鮮後期書院研究』, 一潮閣, 2001, 326쪽.

부를 통해 확인하고자 한다.

19세기의 도산서원 원장은 전체적으로 진성이씨가 많은 가운데 18세기와 달리 예안 내부인원이 수행하는 경우가 많아지며(68%), ‘文純是非’가 벌어진 1825년 이후로 광산김씨가 배제되었다. 진성이씨는 1801년부터 1895년까지 203명의 원장 중에 129명을 차지하여 비중이 무려 63.5%에 달한다.²⁸⁾ 이 중에서 병호시비가 시작된 1805년부터 1820년까지의 원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1805~1820년 도산서원 원장 역임자²⁹⁾

연도	성명	거주지	본관(가계)	경력	비고
1805	鄭來成	안동	청주정씨		不明
	李宗淳	예안	진성이씨(하계파)	前도사 문과	호유
1806	李龜容	예안	진성이씨(하계-단사파)		호유
	柳相祚	안동	풍산류씨(류성룡 종손)	前승지 문과	병유
1807	李師觀	예안	진성이씨(?)		不明
	金是瓚	예안	광산김씨	前직장	호유
	琴宗潤	예안	봉화금씨		호유
	李堉	안동	한산이씨(이광정 子, 이상정 姪)	前참봉	호유
1808	金瑩	예안	예안김씨		不明
	李龜洪	예안	진성이씨(의인파)		병유
1809	李周禎	안동	고성이씨	前좌랑 문과	호유
	金漢儒	예안	광산김씨		호유
1810	李齊翁	예천	진성이씨		不明
	李龜老	예안	진성이씨(의인파 주손)		병유(?)

28) 우인수, 「조선후기 도산서원 원장의 구성과 그 특징」, 『退溪學과 儒敎文化』53, 慶北大學校 退溪研究所, 2013, 124쪽.

	鄭烈	성주	청주정씨(정구 7세손)	行현감	不明
1811	李眞慶	예안	진성이씨		不明
	李仁行	영주	진성이씨(李濯 後)	前현감	不明
1812	金洎				不明
	金宗壽	안동	의성김씨(김성일 후손)	前현감 생원	호유
1813	丁若琇	영천	나주정씨	前진적 문과	不明
	李鍾淳	예안	진성이씨(하계과)		병유(?)
1814	李龜裕	예안	진성이씨(계상과)		병유(?)
1815	朴時源	영주	반남박씨	前지평 문과	호유
	李秉運	안동	한산이씨(이상정 孫)	前현감	호유
	李野淳	예안	진성이씨(하계과, 鍾淳 4촌)	前참봉	호유
1816	李頤淳	예안	진성이씨(종과)	前현감	병유(?)
1817	金熙周	안동	의성김씨(내성-해저리 거주)	前참판 문과	호유
1818	李泰淳	예안	진성이씨(하계과, 鍾淳 弟)	前응교 문과	호유
	韓致應	한양	청주한씨	行유수 문과	不明
1819	李家淳	예안	진성이씨(하계과)	정자 문과	호유
1820	金震儒	예안	광산김씨		호유

도산서원은 임기 3년인 10명의 公事員이 3명을 천거하여 다수의 권점을 획득한 이를 원장으로 선출하였다. 다음 원장 선출 때는 앞서 선택되지 못한 나머지 두 명을 자동으로 포함하고, 나머지 한 명을 새로 추천하여 새 원장을 뽑았다. 원장의 임기는 1期라 하여 正調, 春享, 秋享으로 일년의 큰 제사 3번에 맞추어 3기로 나누었다. 산술적으로 일년에 3명의 원장을 선출하지만, 유임할 수도 있었다.³⁰⁾ 표에서 보듯 원장은 1년에

29) 우인수, 「조선후기 도산서원 원장의 구성과 그 특징」, 『退溪學과 儒敎文化』53, 慶北大學校 退溪研究所, 2013, 116~123쪽의 표를 재구성.

30) 우인수, 「조선후기 도산서원 원장의 구성과 그 특징」, 『退溪學과 儒敎文化』53, 慶北大學校 退溪研究所, 2013, 91쪽.

한 명인 경우도 있고, 여러 명인 경우도 있었다.

표에서 光山金氏, 義城金氏, 韓山李氏, 奉化琴氏, 固城李氏는 호유로 분류하였고, 豐山柳氏는 병유로 분류하였다. 眞城李氏의 경우 이황의 맏손자인 李安道(蒙齋, 1641~1584)의 후손인 宗派와 溪上派 및 李純道(1554~1584)의 후손인 宜仁派는 중립 내지는 병유에 기울어진 것으로 보았고, 李詒道(東巖, 1559~1637)의 후손인 下溪派는 호유로 분류하였다. 또 양측의 입장을 반영한 각종 통문과 상소에서 서명한 인물을 기준으로 호유와 병유를 추측하였다. 이러한 기준으로 분류할 경우, 명확하지 않은 몇 명을 제외하더라도 도산서원 원장 중 호유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상정 추향 문제가 거론되는 1812년 이후 1820년까지 병유로 추정되는 인물은 진성이씨를 제외하고는 원장이 되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병호시비가 한창이던 1816년의 원장은 李頤淳(後溪, 1754~1832)이었다. 그런데 1817년 1월 연초 堂會에서 아직 원장인 이이순의 발의와 별임 金甲鍊·南日躋 및 前任 원장인 李龜洪의 권고로 『退溪集』의 개관이 시작되었다.³¹⁾ 이 일은 문집을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판각 중 마모가 심한 판목을 개간하는 작업이었다. 따라서 문집 내용 교정에 따른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이를 발의한 사람들은 병유에 가까운 사람들이었다. 이것은 병호시비 중에 병유 측에서 『퇴계집』 개관을 통해 '퇴계의嫡傳'임을 천명하고 향론의 주도권을 잡으려 했던 시도로 보인다. 1837년(헌종 5)에 柳台佐(鶴棲, 1763~1837)도 도산서원 원장이 되어 『퇴계집』 개간 시도를 한 것도 이것과 관련이 있다.³²⁾

31) 『先生文集改刊日記』, 丁丑(1817) 1월 5일.

개판 작업이 이루어지던 시점은 위판 천동 문제가 한창 제기되는 시점이었다. 1817년 3월 중순에 경상도관찰사 김노경은 도산서원의 작업 소식을 듣고 이를 지원하러 직접 도산서원을 방문하였다. 물론 예안을 방문하는 길에 안동의 호계서원 문제를 살피려는 의도도 있었다. 하지만 관찰사가 도산서원에서 병호시비를 거론하였으나, 안동·예안의 유림들은 관찰사 앞에서 직접 문제를 거론하려 들지 않았다.³³⁾ 앞서 보았던 김노경도 사태 해결에 명확한 의지를 가진 것이 아니었다.

이렇게 병호시비가 진행되는 가운데 1818년(순조 18)부터는 체제공을 신원소를 두고 갈등이 확산되었다. 체제공은 순조 1년(1801) 12월에 삭탈관직 되었다.³⁴⁾ 이후 1814년 4월부터 그 제자와 후손인 부호군 洪時濟(1758~?), 도승지 李儒慶(淸心翁, 1748~1818), 체제공의 손자 蔡柱永등의 상소와 原情이 이어졌다.³⁵⁾

체제공은 정조와 영남남인을 주선하여 영남이 ‘逆鄉’의 汚名을 씻고 중앙정계에 다시 진출하도록 도왔다. 따라서 안동을 위시한 영남남인의 기본 입장은 체제공의 신원이 자신들의 의리와 관계있다는 것이었다. 호유와 병유 모두 정조에 대한 의리와 1792년(壬子) 당시 萬人疏에서 나타난 莊獻世子에 대한 의리, 체제공에 대한 의리를 동일시하였다.

영남에서 본격적으로 체제공의 신원이 발의되는 것은 1818년부터이

32) 柳台佐, 『鶴棲集』卷20. 附錄 行狀. “丁酉秋, 陶山書院重刊文純公文集, 士林再薦公爲洞主, 公搜未刊文字十二卷擬并刊, 未果. 是年十一月二十六日, 以疾考終于和敬堂, 享年七十五”

33) 『先生文集改刊日記』, 丁丑(1817) 3월 13일.

34) 『순조실록』 권3, 순조 1년 12월 18일 경신.

35) 『순조실록』 권17, 순조 14년 4월 8일 기사; 『순조실록』 권17, 순조 14년 4월 20일 신사; 『순조실록』 권17, 순조 14년 7월 16일 갑진.

다. 1818년 5월 28일에 도산서원에서 도남서원 도회소에 통문을 보내 병산서원에서 주창한 채제공 義理疏에 동참하겠다고 통보하였다. 이 통문에는 李泰淳(草庵, 1759~1840) 이하 인원들의 서명이 되어 있다.³⁶⁾ 여기서 영남의 채제공 신원소는 병산서원, 즉 병유 측에서 먼저 주도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같은 해 6월 29일에는 호계서원, 삼계서원, 청성서원, 泗濱書院, 경광서원, 구계서원, 道淵書院, 목계서원, 仁溪書院, 노림서원, 태양서원 등의 유생 117명이 연명하여 삼강서원 도회소에 채제공 신원에 동참한다는 통문을 보냈다.³⁷⁾ 이 통문 작성을 위한 모임은 안동의 西岳寺에서 있었다.³⁸⁾ 이 통문에서 당시 호파에 해당하는 서원 및 인물들의 면면을 알 수 있다. 또 당시 신원소가 병과 측의 병산서원, 상주 도남서원, 용궁 삼강서원에서 진행되고 있음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도산서원 원장인 이태순은 이미 副應敎에 除授 받았으나 上京하지 않고 있다가 5월 22일에 상소를 올렸다. 그 내용은 蔡弘遠(1762~?, 채제공의 子), 洪時濟, 丁若鏞(茶山, 1762~1836)을 석방하고 尹奎範(南阜, 1752~1821, 尹善道の 7세손)을 등용하라는 것이었다.³⁹⁾ 상소 작성 시점은 병유 측에서 채제공 신원을 추진하던 시기와 같은 때이다. 이것이 병유의 신원소 이전에 호유 측의 독단적인 움직임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다만 상소에서 채제공을 직접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안동유림의 합의

36) 한국국학진흥원 자료관리실, 『조선시대 고문서 자료집(I)-통문과 상소』, 한국국학진흥원, 2007, 168쪽, 豐山柳氏和敬堂 통문098.

37) 한국국학진흥원 자료관리실, 『조선시대 고문서 자료집(I)-통문과 상소』, 한국국학진흥원, 2007, 166쪽, 豐山柳氏和敬堂 통문097.

38) 『癯翁李秉鐸曆上日記』, 戊寅(1818) 6월 30일. “際可(이병운)自西岳會來. 知諸議不無異同. 畢竟鄉更道會. 合 同西上. 發通云.”

39) 『승정원일기』, 순조 18년(1818) 5월 22일. 이 상소로 정약용이 解配되었다.

에 의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채제공 신원소는 7월에 들어 疏首로 내정되었던 호유 측 인사가 돌연 사퇴하고, 호유 측 인사들이 모두 철수하면서 분열상을 노출하였다.⁴⁰⁾ 호유는 그 이유가 병유의 悖說때문이라고 하였고,⁴¹⁾ 병유는 海金坪의 柳某와 사빈·노림·청성·경광서원의 유림들이 채제공만을 위해 상소한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였기 때문이라고 반박하였다.⁴²⁾ 이 시기는 禮曹 關文은란이 확대되던 시기로, 채제공 신원소도 그 영향 아래에 놓이게 되었다.

양측이 신원소에 대한 합의에 실패하자 병유 측은 독자적으로 채제공 신원소를 추진하였다.⁴³⁾ 반면 호유 측은 이 무렵 호계서원의 천동 여부를 조사하는 조사관을 맞이하고 있었다.⁴⁴⁾ 이러한 사실은 당시 신원소의 추진운동이 병호시비의 영향 아래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채제공 신원소는 李學培를 疏首로 하고 1천여 명 이상 연명하여 1818

40) 한국국학진흥원 자료관리실, 『조선시대 고문서 자료집(I)-통문과 상소』, 한국국학진흥원, 2007, 169쪽, 豐山柳氏和敬堂 통문100.

41) 한국국학진흥원 자료관리실, 『조선시대 고문서 자료집(I)-통문과 상소』, 한국국학진흥원, 2007, 170쪽, 豐山柳氏和敬堂 통문101.

42) 한국국학진흥원 자료관리실, 『조선시대 고문서 자료집(I)-통문과 상소』, 한국국학진흥원, 2007, 175쪽, 豐山柳氏和敬堂 통문134.

43) 이병탁은 이 상소를 '屏疏'라 지칭하였다. 이는 그가 당시 상소를 안동유림의 公論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癸翁李秉鐸曆上日記』, 戊寅(1818) 9월 28일. “傳屏疏得徹, 有退修學業之批云.”

44) 『癸翁李秉鐸曆上日記』, 戊寅(1818) 9월 18일. “沙中에서 使行을 기다렸으나,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듯하여 호계서원으로 먼저 돌아왔다. 갑자기 사행이 서원의 앞길로 들어왔다. 원장 김희주와 잠시 후 대화를 하였다. 조사는 비록 행하지 않았으나 뜻이 자못 훌륭하고 역시 是非를 알고 있었다고 하니, 다행이다.(等候使行於沙中, 而查事似不成, 故先歸院中. 俄而使行歷入院前路. 與洞主金台移時語, 查雖不行, 而意思頗偉然, 亦知是非云, 可幸.)” 여기서 나타나듯이 당시 官에서는 굳이 시비를 명확히 가리려고 하지 않았다.

년 9월 20일에 올려졌다. 이 상소는 처음에 승정원에서 성균관의 ‘謹悉’이 없다고 거부당했으나, 지평 李儒修의 상소 덕분에 순조에게 올려질 수 있었다. 그러나 순조는 죄인의 관작을 추탈하는 것은 조정의 일이고, 重臣에 대한 것은 너무 과격하다고 비답하였다.⁴⁵⁾

여기서 공격받은 重臣은 知事 洪義浩(擔寧, 1758~1826)였다. 체제공 신원소의 내용 중 절반 정도가 홍의호에 대한 성토였는데, 호유 측인 李家淳(霞溪, 1768~1844)의 주장에 따르면 이것은 애초에 합의된 내용이 아니었다. 그는 병유 측이 功을 독차지하기 위해 급급히 소행을 추진하였으며, 이미 합의한 문구도 멋대로 바꾸어 洪義浩를 공격하는 내용이 추가되었다고 하였다.⁴⁶⁾

호유 측이 체제공 신원소에 미온적인 태도를 취한 이유는 이미 병유 측에 주도권을 잃어버렸다는 이유와 함께, 체제공의 신원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를 먼저 해결하려 시도했던 것으로 보인다. 앞서 체제공만을 위한 상소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이 상소와 함께 다른 인물의 신원을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여기서 호유 측이 우선시하는 인물은 조덕린으로 추측된다.

호유 측은 체제공의 신원만큼이나 자신들의 학맥인 조덕린 및 김성탁, 멀리는 이현일까지 신원하는 것이 중요한 현안이라고 생각하였다. 이 시기까지 이현일은 肅宗과 景宗 대에 신원되었다가 곧바로 취소되었고, 김성탁은 신원된 적이 없었다. 반면 조덕린은 정조 대에 바로 체제공의 주선으로 신원되었다. 이에 호유는 조덕린과 체제공의 인연을 강조하면서

45) 『순조실록』 권21, 순조 18년 9월 20일 을묘.

46) 『霞溪手錄』 「戊寅屏儒伸理蔡相」

채제공 신원에 조덕린 신원을 포함시킬 것을 주장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⁴⁷⁾ 호유 측의 입장에선 일차적으로 조덕린이 신원되어야, 이후에 김성탁과 이현일의 신원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던 것이다.

1818년 9월의 채제공 신원소가 실패한 뒤에도 계속 상소를 하려는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호유 측에서는 1818년 11월 8일 청성서원에 모여 채제공 신원을 계속하며 예안향교에서 11월 25일 도회를 열 것을 통보하였다.⁴⁸⁾ 병유 측에서도 이 제안은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⁴⁹⁾ 그런데 11월 26일 예안향교에 모인 호유가 이가순을 도산서원 원장으로 뽑으면서 논란이 벌어졌다.⁵⁰⁾ 이가순과 이태순은 병유 측에서 채제공 신원을 반대한다고 지목한 인물이었다.⁵¹⁾ 병유 측은 주계서원에서 예안향교로 통문을 보내 이가순의 교체를 요구하였다.⁵²⁾ 앞서 도산서원 원장명단에서 1819년은 이가순 외에 다른 인물이 확인되지 않고 1820년에도 광산김씨인 金震儒가 원장이 되는 것을 보면 병유 측의 요구는 성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도산서원 원장 선출이 논란의 핵심이 되면서

47) 『霞溪手錄』의 「蔡相陳言」은 채제공이 조덕린의 신원을 정조에게 건의한 내용이다. 이가순이 이 내용을 『霞溪手錄』에 포함시킨 의도를 짐작할 수 있다.

48) 한국국학진흥원 자료관리실, 『조선시대 고문서 자료집(I)-통문과 상소』, 한국국학진흥원, 2007, 71쪽, 豊山柳氏和敬堂 통문013. 이 통문은 주계서원에서 작성되었다.

49) 한국국학진흥원 자료관리실, 『조선시대 고문서 자료집(I)-통문과 상소』, 한국국학진흥원, 2007, 163쪽, 豊山柳氏和敬堂 통문095.

50) 『癸翁李秉鐸曆上日記』, 戊寅(1818) 11월 26일. 參道會. 席議定. 摺紳聯疏. 疏首李公宅. 望出陶山長李學源(이가순).

51) 한국국학진흥원 자료관리실, 『조선시대 고문서 자료집(I)-통문과 상소』, 한국국학진흥원, 2007, 132쪽, 豊山柳氏和敬堂 통문069.

52) 『霞溪手錄』 「附周溪辱通」. 이 통문은 1818년 11월 27일에 작성되었고, 서명은 柳台佐 한 명뿐이다. 이날은 앞서 병유 측이 채제공 신원소에 참여하기로 결정한 날이다. 추측컨대 이가순은 병과의 대표자로 류이좌의 성명만 붙여놓은 듯하다.

채제공 신원소는 양측의 합의로 추진될 수 없었다. 1818년 12월 30일에 獻納 李彥淳(1774~1845)이 올린 채제공 신원에 관한 상소는 公論을 토출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호유 측의 독자 행동으로 보인다.⁵³⁾

호유 측도 1820년(순조 20)에 주도적으로 채제공 신원소를 추진하였다. 이 작업은 10월에 삼계서원에서 시작하였다.⁵⁴⁾ 이들은 11월 28일에 榮川 伊山書院에서 道會를 열기로 결정하였다.⁵⁵⁾ 호유의 의도대로 이산서원에서 도회가 열리기 하였으나, 이병탁의 일기에 따르면 병유 측의 훼방으로 公論이 모아지지 못하였다.⁵⁶⁾ 결국 이 상소는 올리지 못하였다. 이때는 위판천동의 범인 문제로 향론이 한창 분열되던 시기였기 때문이다. 호유는 채제공 신원소를 통해 향론의 주도권을 가져오려 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병유 역시 이에 동의해줄 이유가 없었다.

영남 유림, 특히 안동 유림은 채제공 신원을 통하여 정조 대 해소되었다가 순조 대에 다시 불거진 무신란 연루 혐의를 해결하고 정조의 知友를 되새기려 하였다. 하지만 이것이 향론 주도권 다툼으로 비화되면서 신원소는 실패로 돌아가고 향론의 분열만 가속화 되었다. 결국 채제공 신원은 영남의 신원운동과 관련 없이 이루어지게 된다.

처음에 단순히 상소문의 位次 문제로 시작되었던 병호시비는 1812년에 호계서원에서 이상정을 추향하는 문제로 인해 심화되었다. 이상정의

53) 『승정원일기』 순조18년(1818) 12월 30일.

54) 『癯翁李秉鐸曆上日記』, 庚辰(1820) 10월 15일. “溪書院會中發文。爲伸理蔡樊巖疏舉。以十一月二十六日定”

55) 한국국학진흥원 자료관리실, 『조선시대 고문서 자료집(I)-통문과 상소』, 한국국학진흥원, 2007, 83쪽, 豐山柳氏和敬堂 通문031.

56) 癯翁李秉鐸曆上日記, 戊寅(1818) 11월 26일. 參道會. 席議定. 搢紳聯疏. 疏首李公宅. 望出陶山長李學源(이기순).

추향은 학봉계 학맥이 퇴계학맥, 나아가 영남학파의嫡統이 되는 문제와 결부되어 있었다. 호유 측은 이상정 추향을 통해 자신들이 퇴계학맥의 적통임을 확정하고, 호계서원의 주도권 및 안동 지역의 향론 주도권을 확보하려 하였다. 병유 측은 호계서원을 현상태로 유지함으로써 호유 측의 시도를 무산시키려 하였다. 이후 1810년대에는 양측의 갈등이 깊어지면서 이 문제는 호계서원을 넘어 향내 다른 현안에까지 확대되었다.

4. 향론의 保畧 시도

1820년대에는 병호시비의 논란이 다소 진정되는 양상을 보인다. 1823년(순조 23)에는 체제공 신원이 이루어짐으로써 향론에도 변화가 일기 시작하였다. 이에 양측은 是非의 保畧을 추진하게 된다. 체제공 신원 이후 이루어진 『樊巖集』 간행 작업은 우여곡절 끝에 양측이 함께 참여한 모양으로 진행되었다. 1825년에는 보다 적극적인 향론보합 시도가 있었다. 이때에 이루어진 향론 보합시도와 그 결과는 안동지역 내에서 향후 수십 년간의 영향을 미쳤다.

병호시비가 잠잠해지는 가운데 1823년에 홍시제의 상소로 체제공이 신원되었다.⁵⁷⁾ 안동유림 입장에서는 논의를 주도할 기회를 놓쳤지만, 체제공 신원 이후 현창하는 일을 벌이기 시작하였다. 우선은 도산서원의 試土壇碑를 증건하였다. 이것은 1792년에 정조가 李晩秀를 도산서원에 보내 치제하고 陶山別試를 연 것을 기념하기 위해 1796년에 세운 것이다. 그때 비문을 쓴 사람이 바로 체제공이었다. 그리고 시사단비 증건을 위한 도회는 1823

57) 『순조실록』 권26, 순조 23년 4월 7일 병오.

년 7월 9일에 있었는데, 여기에서 『樊巖集』 간행이 결의되었다.⁵⁸⁾ 이때 모인 사람들은 안동·예안을 비롯하여 道内の 유림이었다. 따라서 『번암집』 간행의 시작 단계에서는 도내가 화합하는 가운데 추진하는 것이 되었다.

이때 뽑힌 刊役都監은 이이순, 李鼎秉(琴坡, 1759~1834, 李彦迪 後), 류이좌이고, 校正都監은 金是瓚(一一齋, 1754~1831, 金富倫 後), 李師愚, 權思浹(醉竹, 1753~1832), 金熙紹(文泉, 1758~1837, 金聲久 後), 朴光輔(錦西, 1761~?), 鄭燧, 이인행, 鄭必奎(魯庵, 1760~1831, 鄭琢 後), 이태순, 柳尋春(江阜, 1762~1834, 柳成龍 後), 김종규, 金坤壽, 鄭秉魯, 李岳祥, 李以健, 金永義였다.⁵⁹⁾ 그런데 교정도감으로 뽑힌 인원은 출신 지역이 道内に 망라되어 있고, 병유와 호유가 섞여있는 데 비해, 간역도감 3인은 모두 병유에 해당하는 인물이었다. 즉 『번암집』 간행은 시작단계부터 병유의 주도로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번암집』을 영남에서 간행하게 되는 계기와 병유 측, 특히 하회의 풍산류씨 문중이 주도하는 배경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애초에 『번암집』은 채제공 사후 正祖가 편찬 범례를 다 지정해놓은 상태였다. 하지만 정조가 얼마 후 昇遐하고 채제공이 추탈되면서 『번암집』 간행은 중단되었다.⁶⁰⁾ 『刊所日記』에 따르면 원래 채제공의 아들 채홍원이 간역을 부탁하면서 1800년에 영남으로 1,000냥을 부쳤다. 그러나 채홍원이 유배를 가게 되면서 700냥을 유배비용으로 돌려받았고, 나머지 300냥은 영남의

58) 『간소일기』에 기록된 『번암집』 간행의 경과는 임노직, 「樊巖集 판각 경위와 문화사적 의미」, 『한국사상의 재조명』, 한국국학진흥원, 2007에 자세하다. 간행 당시의 쟁점을 중심으로 병호 양측의 움직임을 분석하였다.

59) 『刊所日記』(成冊 221), 癸未(1823) 7월 9일.

60) 김문식, 「번암집 간행의 경과」, 『문헌과 해석』26, 문헌과 해석사, 2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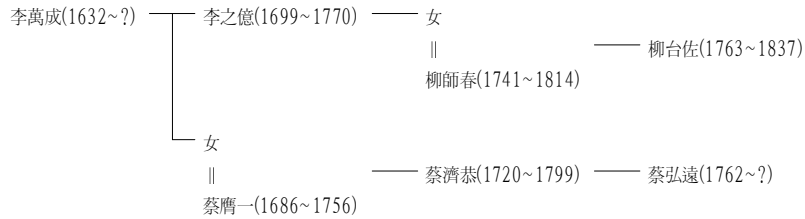
서원에 그대로 맡겨져 있었다. 즉 『변암집』은 처음부터 체제공 본가에 의해 영남에서 간역할 의도가 있었다.⁶¹⁾

한편 체제공과 류이좌의 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류이좌의 외증조부는 연안이씨 李萬成으로 체제공의 외조부였다. 따라서 류이좌와 채홍원은 인척관계가 되며 촌수로는 6촌간이 된다.⁶²⁾ 즉 류이좌에게 『변암집』 간행은 안동유림을 대표해서 일을 추진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인척의 현양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기도 하였다. 사실 병유를 주도하는 풍산류씨 문중은 경남을 비롯한 중앙 정치세력과의 연계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 병유는 중앙정치세력과의 연계를 통해 병유를 비롯한 영남남인들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고, 그들의 현실 인식은 경남과의 제휴뿐만 아니라 세도정치 아래서도 계속되었다.⁶³⁾ 류이좌의 『변암집』 간행 주도는 이러한 연장선 아래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영남에서의 결의는 바로 채홍원에게 통보되었는데, 그때 채홍원도 간역의 公事員을 미리 뽑아 알려오고 있었다. 그가 지명한 인물은 參判 金熙周(葛川, 1760~1830)와 豐安君 柳相祚(逸愚, 1763~1838)였다.⁶⁴⁾ 김희주는

61) 『刊所日記』(成冊 130), 癸未(1823) 9월초.

62) 이를 도식화 하면 다음과 같다.



63) 김명자, 「조선후기 安東 河回의 豊山柳氏 門中 연구」, 경북대 박사학위논문, 2009, 207쪽.

義城金氏로 奈城의 海底[바래미] 출신이다. 그는 정조 대에 여러 관직을 역임하여 당대 영남남인을 대표하는 위치에 있었으며, 호유 측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었다. 류상조는 류성룡의 종손으로 류이좌와는 사촌 관계이다. 당시 류이좌와 함께 풍산류씨를 대표하는 인물로 도산서원 원장을 역임한 바 있다. 채홍원은 이들을 지명하면서 화합하기를 당부하는데, 이를 통해 그가 병호시비에 민감히 반응하면서 이들 둘을 묶어서 일이 원만히 추진되기를 기도했음을 알 수 있다.

본격적인 간역 작업은 이듬해인 1824년 4월에 봉정사에서 시작되었고, 6월경에 마무리 되었다. 하지만 채홍원의 기대와 달리 간역 작업은 순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크게 문제가 된 것은 첫째 채제공이 쓴 조덕린 행장의 기재 여부, 둘째 임원 분정을 둘러싼 시비, 셋째 간행경비 문제였다.

앞서 보았듯 조덕린은 채제공의 도움으로 신원되었으나, 순조 대에 다시 추탈되었다. 따라서 채제공이 쓴 조덕린의 행장은 문집에서 빼기로 결정하였다. 이를 해결하려 영양의 조덕린 종가에서 趙居信(梅塢, 1749~1826), 趙居讓 형제가 직접 와서 이 문제를 논의하였다. 이들은 조덕린 행장을 문집에 포함시키기를 주장하였지만, 채홍원은 굳이 혐의 있는 일을 할 수 없으며, 심지어 본가에서도 『玉川集』보다 후손인 趙述道(晩谷, 1729~1803)의 『晩谷集』을 먼저 간행했고, 이상정의 『大山集』에도 조덕린의 글이 빠져있다고 거부하였다.⁶⁵⁾ 결국 조덕린 행장은 『변암집』에서 빠지게 되었다. 문제는 조덕린이 이현일의 제자로 호유(학봉계)에서는 학

64) 『刊所日記』(成冊 221), 癸未(1823) 8월 그믐.

65) 『刊所日記』(成冊 130), 甲申(1824) 4월 22일.

맥을 잇는 중요한 인물이었다는 것이다. 계속 호유 측의 비협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조덕린의 행장을 배제하는 것은 호유의 반발을 사는 행동이었다. 이때 당시 진성이씨로 호유를 대표하는 인물인 李野淳(廣瀨, 1755~1831)이 별집을 만들어 조덕린의 글을 넣고 영남에만 배포하자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나, 실현되지 않았다.⁶⁶⁾ 이런 까닭에 영양의 한양조씨가를 위시한 영양향교에서 부조자체를 거부함으로써 경비 마런 측면에서도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⁶⁷⁾

임원분정은 1823년 10월 20일 도산서원 도회에서 결정되었다. 김희주와 류상조가 도도감이 되고 병유와 호유가 논의하여 임원추천을 하였는데, 다시 병호시비는 거론하지 말 것을 결의하였다.⁶⁸⁾ 문제는 논란을 피하기 위해 논란이 되는 인사들을 모조리 임원에 임명하며 일어났다. 특히 문제가 된 인물은 호계서원 위판천동 모訴 및 예조 관문 위조사건에서 병유 측의 중심적 역할을 했던 김종규였다. 그가 임원에 분정된 사실을 안 호유 측 주요인물인 이병탁·金經進·柳致明(定齋, 1777~1861)는 11월 8일 삼계서원 도회에 사퇴단자를 올리고 참여를 거부하였다.⁶⁹⁾ 이병탁은 병유와 같이 일을 할 수 없다는 심정을 일기에 기록했는데,⁷⁰⁾ 이를 통해 호유 측이 『번암집』 간행 작업을 보는 시각을 추측할 수 있다.

채홍원은 1824년 4월 18일에서 5월 18일까지 간역소에 머무르며 진행을 도왔다. 호유 측의 비협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그가 하는 주요 일은

66) 『刊所日記』(成冊 221), 甲申(1824) 4월 28일.

67) 『刊所日記』(成冊 130), 甲申(1824) 5월 8일.

68) 『刊所日記』(成冊 130), 癸未(1823) 10월 20일.

69) 『刊所日記』(成冊 130), 癸未(1823) 11월 8일.

70) 『癯翁李秉鐸曆上日記』 庚辰(1823년) 10월 27일. “吾豈可與屏通首同事耶.”

김희주를 刊所에 참여하도록 하여 호유의 동의를 얻어내는 것이었다. 김희주는 경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가운데, 호유 측 유림의 비협조가 이어지면서 호유의 대표로서 곤란한 지경에 처해있었고, 기회가 닿는 대로 사퇴하려고 시도하였다.

채홍원은 5월 1일에 母親喪 중에 있던 이병운을 직접 방문하여 이상정 후손들의 동의를 구하려 하였다.⁷¹⁾ 하지만 오히려 병호시비 문제로 채홍원과 이병운의 언쟁이 벌어지면서, 이병탁도 끝내 임원으로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나고 말았다. 또 이병운이 봉정사 인근의 光興寺에 와서 『번암집』 속의 이상정 문자가 포함된 문집 초본을 보여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채홍원은 이상정의 글이 실리지 않은 문집 1권만 보내면서 직접 와서 확인할 것을 요구하였다.⁷²⁾ 채홍원은 이병운이 직접 간행 장소로 와서 公論이 합치되는 모습을 보이길 원하였으나 이병운은 봉정사에 끝내 가지 않았다.

이러한 호유 측의 비협조가 가장 크게 나타난 것은 경비 문제였다. 앞서 刊所에서 추산한 총 필요 경비는 3~4,000냥이었다. 刊所의 계획은 애초 채홍원이 준 돈 중 남은 300냥을 지금껏 충분히 殖利를 했으면 이를 충당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들은 우선 1813년 가을에 보관하던 300냥을 삼계서원에 모았고, 이듬해(1814) 봄에 호계서원, 병산서원, 삼계서원에 100냥씩 나누었다. 이를 다시 1817년에 삼계서원에 모았는데, 이때 병산서원은 보내지 않고 따로 관리하였다.⁷³⁾

여기서 병유 측은 자신들은 1814년부터 착실하게 3부 이자를 놓아

71) 『刊所日記』(成冊 130), 甲申(1824) 5월 1일.

72) 『刊所日記』(成冊 221), 甲申(1824) 5월 7일.

73) 『刊所日記』(成冊 130), 癸未(1823) 10월 20일.

1817년에 219냥을 만들었는데, 당시 삼계서원의 독촉으로 인해 119냥을 보냈고, 이후 남은 100냥을 다시 식리하면 1824년 현재 627냥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마련해 두었다고 한다. 여기에 병유는 삼계서원의 경우 1817년에는 원금 200냥을 식리한 금액 438냥에 병산서원에서 가져간 119냥을 합해 557냥이 있어야 하며, 이를 착실하게 식리했을 경우 3,400여 냥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⁷⁴⁾ 따라서 병산서원에 보관된 600여 냥과 삼계서원에 있어야 할 3,400여 냥을 합하면 4,000냥이 넘는 경비 마련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였다.⁷⁵⁾

문제는 삼계서원에 있어야 할 3,400여 냥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김희주는 그 동안의 자금 중 700냥으로 토지를 구매하였고, 현재 식리로 모은 돈은 1,943냥 2전 3푼 밖에 없다고 고백하였다. 이렇게 되자 병유 측에서 호유의 자금 전횡을 문제 삼기 시작하였다. 김희주가 억울함을 호소하고 도회에 참석하지 않으면서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게 되었다. 결국 어떻게든 일을 추진해야 하는 류상조는 일단 1,900냥이라도 刊所에 모으고, 나머지 모자라는 비용은 道內에 통문을 보내 각출하기로 중재안을 제시하였다. 이 안이 받아들여져 刊所에서는 삼계서원의 비용을 재촉하면서 道內 각지의 扶助를 받게 되었다.

실상 애초에 원금을 꾸준히 殖利로 불린다는 것이 어려운 일인 데다가 토지까지 구매하였기 때문에 삼계서원에 3,400냥이 모이기를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러나 병유는 호유의 횡령을 의심하였고, 호유는 식리의 어려움을 주장하였다. 더 큰 문제는 모자라는 1,500여 냥

74) 원금 557냥을 3부로 7년간 식리하면 3,495냥이 된다.

75) 『刊所日記』(成冊 130), 癸未(1823) 11월 8일.

이 당장 각출하여 마련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점이였다. 게다가 호유는 약속한 1,900여 냡을 곧바로 보내지 않았다. 간역이 마감되는 시점인 1824년 6월 22일까지 삼계서원에서 刊所에 지급한 총액은 1680 냡이였다.⁷⁶⁾ 이를 통해 호유 측은 『번암집』 간행이라는 큰 틀에는 동의하여 작업 자체를 방해하지는 않았지만, 방관자적인 입장에서 간행 작업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번암집』 간행의 경우 신원소 때처럼 사업 자체가 좌초되지는 않고, 양측의 참여 속에서 이루어졌다. 이는 양측이 화합할 수 있는 단초를 미약하게나마 제공하는 것이였다. 이듬해에는 보다 적극적인 보합시도가 이루어졌다. 이것은 1825년(순조 25) 10월 28일에 병유 측에서 보합을 위한 도회를 열 것을 요청하면서 시작되였다. 당시 병산서원 원장 爾鎭 등 56명 서명은 11월 4일에 호계서원에서 도회를 열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11월 4일에 약 190여 명의 인원이 호계서원에서 도회를 열어 보합을 시도하였다.⁷⁷⁾

이때 병유의 대표로는 柳승과 柳台가 등장하며, 호유의 대표격으로는 川上の 長老 및 李咸昌 兄弟가 나타난다. 여기서 柳승은 豐安君 류상조, 柳台는 당시 右副承旨인 류이좌이다.⁷⁸⁾ 이들은 『번암집』을 간행할 때도 병유의 대표로서 간행 작업을 주도하였다. 川上の 長老는 의성김씨 川前門中の 長老들이며, 李咸昌 형제는 이상정의 손자로 함창현감을 지낸 이병운과 그 동생인 李秉遠을 말한다.

76) 『盧尙樞日記』 1824년 7월 7일. “虎儒之錢未納者, 尙今四百餘兩云”

77) 이하 乙酉道會에 관한 서술은 『廬江顛末』知. 『乙酉道會時日記』를 정리하여 기술하였다.

78) 『승정원일기』에 의하면 당시 류이좌는 10월에 휴가를 받아 내려가 12월까지 안동에 머무르고 있었다. (『승정원일기』 순조25년(1823) 10월 12일; 『승정원일기』 순조25년(1825) 12월 10일.)

병유측은 모임의 목적이 첫째도 保畝, 둘째도 保畝이라며,⁷⁹⁾ 더 이상 擅動과 그에 따른 還安을 거론하지 않겠다고 말한다. 대신 사당의 위패 문제는 사당에 위패를 다시 설치하는 것[新設中堂位次]으로 매듭짓고, 이것에 대해 이병운, 이병원 형제가 결단을 내려주기를 요청하였다.

병유의 대표인 류상조와 류이좌 등은 『번암집』 간행 작업을 주도하면서 향론에서 우위를 차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1825년 도산서원의 원장은 류상조와 李元淳으로, 모두 병유에 해당하였다. 이 기회를 이용하여 그들은 보합을 내세워 분열된 향론을 통합하고자 시도하였다. 이후 19세기에 계속된 병호시비 保畝시도는 병유 측, 특히 하회의 柳氏門中에서 먼저 제안하였다.

하지만 이 보합시도는 결렬되었다. 호유 측 입장은 위패를 신설하는 것은 還安과 똑같은 말이며, 결국 호유가 위패를 擅動했다는 주장과 다름 없다는 것이었다. 이병운 역시 公論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를 자신만의 견해로 해결할 수 없다며 兩柳의 요청을 거절하였다. 사실상 ‘新設中堂位次’론은 호계서원의 배향인물을 현행대로 유지하여 후에 다른 인물을 추향하지 못하도록 확정하겠다는 논의였다. 추향 대상인물은 앞서 살펴본 대로 이상정이었고, 이상정을 추향하지 못하도록 확정하기 위해서는 이병운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다. 반면 이병운을 위시한 호유 측은 이러한 병유의 요청에 절대 동의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결국 1825년의 보합시도도 이상정을 추향 문제와 결부되면서 실패로 돌아갔다.

하지만 도산서원 원장안을 통해서 이후에도 보합을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79) 一則保畝 二則保畝. 이 문구는 『癸翁李秉鐸曆上日記』 乙酉(1825년) 11월 6일 기사에 그대로 등장한다.

〈표 2〉 1821~1840년 도산서원 원장 역임자⁸⁰⁾

연도	성명	거주지	본관(가계)	경력	비고
1821	鄭來成	안동	청주정씨	前지평 문과	不明
	李根淳	예안	진성이씨(계상파, 龜裕 姪)		병유
1822	李彙瑾	예안	진성이씨(하계파 종손)		호유
1823	柳尋春	상주	풍산류씨(柳軫 後)	前현령 생원	병유
	金匡鍊	영주	예안 김씨		不明
	李宜淳	예안	진성이씨(하계파)		호유
	柳致睦	안동	풍산류씨(柳元之 後)	前사서 문과	병유
1824	李龜孫	예안	진성이씨(하계-원촌파)		호유
	鄭必奎	용궁	청주정씨	前참봉	不明
1825	李龜星	예안	진성이씨(하계-원촌파, 龜孫4촌)		호유
	柳相祚	안동	풍산류씨(류성룡 종손)	풍안군 문과	병유, 再任
1826	李元淳	예안	진성이씨(상계-섬촌파)		병유
	李彦淳	예안	진성이씨(하계-단사파, 龜容 子)	前승지 문과	호유
	琴象漫	봉화	봉화금씨		호유
1827	李彙陽	예안	진성이씨(하계파)	前참봉 진사	호유
	金永範	영주	예안김씨	前지평 문과	不明
	琴汝稷	예안	봉화금씨		호유
1828	沈興鎭		청송심씨	行현감	不明
	李取淳	예안	진성이씨(계상파)		병유
	李大淳	예안	진성이씨(의인파)		병유
	李龜時	예안	진성이씨(의인파)		병유
1829 1930	李彙陽	예안	진성이씨(하계파)		호유
	任希浩	예안	풍천임씨		병유(?)

80) 우인수, 「조선후기 도산서원 원장의 구성과 그 특징」, 『退溪學과 儒敎文化』53, 慶北 大學校 退溪研究所, 2013, 116~123쪽의 표를 재구성.

1831	李宗泰	안동	진성이씨(?)		병유(?)
	姜世綸	상주	진주강씨	前승지 문과	不明
	李時敬	예안	영천이씨		병유(?)
	南日躋	안동	영양남씨		병유(?)
1832	柳喆祚	안동	풍산류씨(台佐 弟)	前군수 생원	병유
	李仁淳	예안	진성이씨(하계파)		호유
1833	李程淳	예안	진성이씨(하계-원촌파)	前현감 생원	병유(?)
	鄭僑	상주	동래정씨	前필선 문과	不明
1834	李承淳	예안	진성이씨(종파)		병유
	李龜恒	예안	진성이씨(남해파)		병유(?)
1835	李師侗	예안	진성이씨(?)		不明
	李同淳	예안	진성이씨(의인파)	前승지 문과	병유
	金星鍊	예안	예안김씨	생원	不明
	李龜煥	예안	진성이씨(하계-원촌파)		병유(?)
1836	李彦淳	예안	진성이씨(하계-단사파, 龜容 子)	前승지 문과	호유, 再任
	李保淳	예안	진성이씨(의인파, 大淳 兄)		병유
	李家發	의성	영천이씨		병유(?)
	李庭淳	예안	진성이씨(하계파, 野淳 弟)		호유
1837	李龜晦	예안	진성이씨(하계-원촌파)		호유
	柳台佐	안동	풍산류씨(相祚 4촌)		병유
	李嚴淳	예안	진성이씨(하계파, 野淳 弟)		호유
1838	李老淳	예안	진성이씨(하계-원촌파, 龜星 子)		병유(?)
	李彙正	예안	진성이씨(의인파)		병유(?)
1839	李龜泳	예안	진성이씨(계상파)		병유
1840	李師性	예안	진성이씨(?)		병유(?)
	李彙楨	예안	진성이씨(종파)		병유

이를 통해 확연히 드러나는 사실은 진성이씨가 원장직을 본격적으로 독점하면서, 1810년대에 비해 병유측 인사가 원장에 되는 경우가 늘어났다는 것이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보면 병유와 호유가 교차하여 도산서원 원장을 역임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진성이씨 하계과의 경우 호유 측을 자임하였으나, 종과의 경우는 공식적으로는 중립적 입장을 취하였다. 이것은 논란이 있는 인물보다는 진성이씨 인물을 통해 도산서원을 중립화 시키려는 의도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19세기 초 병호시비의 핵심문제는 이상정 추향을 둘러싼 주도권 다툼이었다. 하지만 이것은 당대 정국에 대한 수용 여부의 문제이기도 하였다. 이것이 체제공 신원소를 둘러싼 갈등 상황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병유는 정치적 위기 속에서 당면 과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며, 이 과정에서 다양한 세력과 연대하자는 입장이었다. 병유, 특히 하회의 柳氏門中과 京南과의 체휴관계는 이미 알려져 있다.⁸¹⁾ 병유는 여기에 더 나아가 노론, 특히 세도정권과도 현안 해결을 위해서 체휴하기도 하였다. 류상조가 豐安君에 봉해지고, 류이좌가 세도정권하에서 영남남인으로서 이례적으로 嘉善大夫에 오르고, 戶曹參判을 역임한 것은 이들의 출처관을 잘 보여주는 예이다. 이후 1850년대에 안동에 金洙根 서원을 창건하려 할 때 류이좌의 아들인 柳祈穆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또 이를 바탕으로 병호보합을 시도하는 것은 이러한 입장을 반영하는 것이었다.⁸²⁾

81) 김명자, 「조선후기 安東 河回의 豐山柳氏 門中 연구」, 경북대 박사학위논문, 2009, 195-209쪽.

82) 이러한 과정에 대해서는 김성윤, 「안동 남인의 정치적 일상과 지역정치의 동향 - 철종대 김수근서원 건립과 고종대 병호보합을 중심으로 -」, 『嶺南學』15,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09. 참조

반면 호유는 자신들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여 향론주도권을 확보하려 하였다. 호유 측 학문의 연원에는 이현일이 자리하고 있었고, 이현일의 신원은 호유의 당면 과제였다. 이현일의 신원이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이들은 이상정을 호계서원에 추향함으로써 그것을 대신하려 했다. 또 이현일을 인정하지 않는 노론 정권이 지속되는 한 그들은 시국에 절대 타협할 수 없는 입장이었다. 체제공 신원과정에서 조덕린의 신원을 거론하는 것은 이들의 입장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조덕린의 신원은 무신란의 혐의를 씻는 길이자 이현일의 신원으로 가는 통로였으며, 이상정의 추향은 영남 내에서 자신들의 입지를 확정하는 방편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호유는 이상정을 배제하는 보합논의와 이현일을 배제하는 세도정권에 배타적 태도를 보이게 된다. 결국 이러한 양측의 정치적 지향이 충돌하면서 병호시비는 쉽게 해결될 수 없었다.

5. 맺음말

이 글에서는 세도정치 전반기에 해당하는 순조 연간에 중앙정계의 변화와 맞물려 안동으로 대표되는 영남 내의 지역 정치사회가 어떠한 움직임을 보이는가를 추적하였다. 이를 위해 순조 연관을 세 시기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정조의 승하 이후 근기남인이 몰락하면서 중앙정계에 주변부에 자리 잡고 있던 영남남인도 더불어 축출되었다. 이들은 정순왕후 사망 이후 시파와 벽파가 교체되면서 정계에서의 활로를 조금이나마 모색할 수 있었

다. 그러나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추진된 영남 4賢의 陞廡疏는 오히려 병호시비라는 향론의 충돌을 야기하였다.

호유 측은 이현일 문집을 간행하여 학과의 정통성을 확립하려 했으나 이러한 시도는 단호히 저지되었다. 같은 이유로 조덕린의 신원 또한 실현되지 못하였다. 이것은 호유 측에 불리한 상황이었고, 이에 호계서원에 이상정을 추향하여 퇴계학맥에서의 정통성을 확고히 하려 하였다. 그러나 병유의 입장에서 이것은 인정할 수 없는 일이었다.

호계서원을 둘러싼 주도권 갈등은 다른 향내 문제를 둘러싸고 확산되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체제공 신원소를 둘러싼 갈등이었다. 이로 인해 체제공 신원소는 道內 전체 公論을 모아서 올리지 못하였고, 심지어 신원소 시도 자체가 무산되는 경우도 있었다. 또 도산서원 원장직을 둘러싸고도 갈등이 야기되었다.

1820년대에는 호계서원을 둘러싼 문제가 일단락되자 향론을 보합하려는 시도가 일어나게 된다. 체제공 신원이후 이루어진 『樊巖集』 간행 작업은 일부 반발이 있기는 하였지만 양측이 함께 참여한 상태에서 진행되었다. 1825년에는 보다 적극적인 향론보합 시도인 乙酉道會가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시도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보합에는 이를 수 없었다. 호계서원을 둘러싼 시비가 ‘퇴계의 嫡傳은 누구인가?’라는 문제와 결부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양측은 절대로 상대에게 양보하지 않았다. 한편 시비의 과정에서 양측이 당시 정계를 바라보는 시각과 출처관에 차이가 드러났다. 한 측은 향내 현안에 대해서 중앙정계와의 연계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이었고, 다른 한 측은 학통의 명분이 해소되기 전까지 어떠한 타협도 없다는 입장이었다.

1820년대의 보합실패로 인해 양측의 입장 차이는 분명해졌고, 그 영향은 안동지역 내에서 향후 수십 년간 이어졌다. 병유는 중앙정계와의 연계를 통해 향론 주도권을 확보하려고 하였다. 병유 측 인물들의 출사와 대원군과의 협력을 통한 보합시도는 이러한 과정의 연장선에서 이해할 수 있다. 반면 호유는 학통의 강화를 통해 학맥의 결집을 시도하면서 향론을 주도하려 하였다. 그러므로 1850년대에 일어난 이현일 신원 운동과 장헌세자 신원 만인소는 그 필연적인 결말이었다.

참고문헌

『廬江志』, 『廬江顛末』, 『癯翁李秉鐸曆上日記』(李秉鐸), 『霞溪手錄』(李家淳), 『刊所日記』
(이상 한국국학진흥원 소장)

권오영, 『조선후기 유림의 사상과 활동』, 돌베개, 2003.

김문식, 『정조의 제왕학』, 태학사, 2007.

신상목 외 역, 『간역시일기』, 한국국학진흥원, 2015.

李樹健, 『嶺南學派의 形成과 展開』, 一潮閣, 1995.

이수환, 『朝鮮後期書院研究』, 一潮閣, 2001.

한국국학진흥원 자료관리실, 『조선시대 고문서 자료집(I)-통문과 상소』, 한국국학진흥원, 2007.

김명자, 「조선후기 安東 河回의 豊山柳氏 門中 연구」, 경북대 박사학위논문, 2009.

김문식, 「번암집 간행의 경과」, 『문헌과 해석』26, 문헌과 해석사, 2004, 181~194쪽.

김성우, 「1800년 ‘인동 작변(仁同作變)’을 둘러싼 다중의 시선들」, 『역사와 현실』 82, 한국역사연구회, 2011, 199~254쪽.

- _____, 「정조 대 영남 남인의 중앙 정계 진출과 좌절」, 『다산학』21, 다산학술문화재단, 2012, 183~210쪽.
- 김성윤, 「안동 남인의 정치적 일상과 지역정치의 동향 -철종대 김수근서원 건립과 고종대 병호보합을 중심으로-」, 『嶺南學』15,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09, 43~96쪽.
- 김영나, 「16~18세기 안동지역 사족의 호계서원(虎溪書院) 운영」, 『朝鮮時代史學報』73, 朝鮮時代史學會 2015, 136~147쪽.
- 金鶴洙, 「17세기 嶺南學派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08.
- 金炯秀, 「19세기 안동과 회주의 향진과 종족 갈등」, 『안동학연구』6, 한국국학진흥원, 2007, 81~107쪽.
- 설석규, 「退溪學派의 分化와 屏虎是非(I)」, 『한국사상의 재조명』, 한국국학진흥원, 2007, 35~84쪽.
- _____, 「退溪學派의 分化와 屏虎是非(II)-廬江(虎溪)書院 置廢 顛末」, 『退溪學과 韓國文化』45, 慶北大學校 退溪研究所, 2009, 311~371쪽.
- 申奭鎬, 「屏虎是非に就いて(上)(下)」, 『靑丘學叢』1·3, 1930·1931.
- 우인수, 「조선후기 도산서원 원장의 구성과 그 특징」, 『退溪學과 儒敎文化』53, 慶北大學校 退溪研究所, 2013, 85~134쪽.
- 이상현, 「月川 趙穆의 陶山書院 從享論議 : 17세기 嶺南士族 動向의 一端」, 『北岳史論』8, 北岳史學會, 2001, 37~93쪽.
- 이재현, 「18세기 이현일 문인의 伸冤운동과 追崇사업」, 『大丘史學』117, 大丘史學會 2004, 29~66쪽.
- 임노직, 「樊巖集 판각 경위와 문화사적 의미」, 『한국사상의 재조명』, 한국국학진흥원, 2007, 503~531쪽.
- 趙峻皓, 「17~18세기 英陽地方 漢陽趙氏의 門中研究-士族家門의 確立과 變遷의 한 事例」, 『北岳史論』4, 北岳史學會, 1997, 161~239쪽.

Abstract

The Political Trends in An-Dong Province During the Reign of Sun-Jo (1800-1834)

Lee, Jae-Hyeon

This essay investigates the political trends of the class of Confucian scholars who had inhabited in An-Dong in the reign of Sun-Jo. First of all, I show the process that Youngnam Namin lost their power in palace politics, who were appointed in the reign of Jeong-Jo. Secondly, I explain the early process of the Byung-Ho conflict in the frame of the academic line from Lee Hyun-il to Lee Sang-jeong. Finally, I suggest the process which the conflict expanded from between the Byung-san lecture hall and the Ho-gye lecture hall to the provincial society, and the various efforts in order to reconcile this conflict.

The Youngnam Namin did not take any posts in the court before the enthronement of King Young-jo. However the King carried into effect the Balancing policy, so that the Youngnam Namin could get some posts in the periphery of the court by the effort of an influential political man, Che Jae-gong, who was the leader of the Gungi Namin

The Byung-Ho conflict was triggered by the memorial rite of Lee Sang-jeong. The Confucian scholars who studied in the Ho-gye lecture hall wanted to be the right followers of the Lee Hwang by the memorial rite of Lee Sang-jeong. However, the scholars who studied in the Byung-san lecture hall tried to block the try of the opposing party.

Although, in the 1820s, there were some kinds of reconciling efforts, the final reconcile was not attained. The reason was that the political aims

of two parties were different each other. The Byung-san scholars underlined the collaboration with the court politicians in order to resolve the provincial problem. On the other hand, Ho-gye scholars wanted to took a distance to the court, accenting a specific regional identification. As a result of this difference, the reconcile was failed.

Key Word

Youngnam Namin(嶺南南人), Confucian scholars of An-Dong(安東儒林), Byung-Ho conflict(屏虎是非), Ho-gye lecture hall(虎溪書院), 『Bunamjip』(『樊巖集』)

- 논문투고일 : 2016.7.4. 심사완료일 : 2016.7.28. 게재결정일 : 2016.8.17.